

## 불법 자가용카풀 근절과 관련하여 사업자님들께 드리는 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서운 한파속에서 수차례에 걸친 “생존권사수결의대회”와 90여 일째 이어지는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을 통한,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새 봄날 불어오는 훈풍과 같이 조금의 정리와 씨앗으로 맺어져, 살신성인으로 돌아가신 두 분 열사님과 분신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의사님의 뜻이 택시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꽃피려 합니다.

우리 16만여 명 개인택시는 전체 택시업계와 연합하여 범망을 교묘히 피해서 택시업계를 파괴하는 세력들에 대항하여 가열 차게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예외 규정인 제1항 제1호 인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가 신설된 취지는 방향이 같은 직장인끼리의 카풀로 유류파동의 위험을 극복하고, 도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 불법 자가용유상운송을 허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가용유상운송을 하는 카풀 업체들이 업역을 마구 침범하더니, 2017년부터는 인터넷기반의 플랫폼업체의 자가용기반 유상운송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여 작년에는 인터넷 거대 기업인 카카오까지 택시업계를 무시하고, 자가용 기반의 24시간 불법 카풀 앱을 출시하고 시범사업으로 업역을 침범하였던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 여당, 야당, 플랫폼 업체는 물론, 편리한 교통을 원하는 시민들은 근무시간의 탄력성과 다원화를 이유로 『하루 24시간이 출·퇴근시간』이라는 데 뜻을 굽히지 않았는데, 우리 30만 택시업계는 여객법 제81조제1항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택시 4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궐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의 열사가 순직까지 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타결된 합의의 주요 내용은 ▶ 카풀은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한정 ▶ 택시 산업 규제 혁파 ▶ 초 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상반기 도입 등 입니다.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 각 2시간씩만 한정된 결과에 대하여 16개 시·도조합 이사장과 4개 단체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해온 출·퇴근 시간을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자가용 불법 유상운송을 전업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출·퇴근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끝까지 오전, 오후 각각 5시간을 주장하는 카풀업체와, 서명까지 몇 시간을 미루고 최종 순간까지 다시 오전, 오후 3시간씩을 끈질기게 주장하던 정부의 고집까지 꺾고, 택시업계는 어렵게 오전, 오후 2시간이나마 받아낸 것입니다.

이제 3월 국회에서 택시업계가 300명의 의원을 찾아다니며 159명의 동의서를 받은 대로, 문진국원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3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수정대안을 통과시켜야 합법을 가장한 불법 자가용유상행위를 박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카풀 플랫폼업체들은 오전, 오후 2시간으로는 자가용 영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카풀업체는 타결안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므로 발빠른 상황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하여 얻어낸 것은 업역보호 외에도 고령자연금 등 지원책과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 선두기업인 카카오와 손을 잡고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에 도입하고, 경쟁력 있는 고급 브랜드 택시로 국민들의 새로운 교통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택시산업에서의 면허제 외에는 사업구역, 택시운임, 부제 등 우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던 모든 규제를 혁파한다는 타결은 새로운 택시업계의 도약의 획기적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이젠 우리도 일본의 MK택시보다도 더 선진화된 한국형 택시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를 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꿈과 희망을 현실화시키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이해부족과 오해로 인한 갈등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접고, 택시업계 전체, 아니 개인택시업계 16만 여명이 똘똘 뭉쳐 사회적대타협 합의안의 후속조치는 물론, 규제혁파와 다양한 브랜드 고급택시로 다시 태어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타다'와 같은 불법 유상운송행위 등의 박멸에도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회를 비롯한 16개 시·도 조합이사장들은 앞으로도 한결같은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및 전국 16개 시·도 조합이사장 일동